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전화 063.442.1166~7
이메일 gscur@daum.net

재생이



3월

■ 발행일 2020. 3. 25 ■ 발행처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혁신도시 군산

봄을 기다리며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송석기 센터장

유래가 없었던 어려움으로 군산경제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군산 경제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녹녹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중앙정부의 신규 사업에 선정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에서는 군산시가 주로 추진해왔던 '중심시가지형' 대신 고밀 개발에 가까운 '혁신지구'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암동 새뜰마을사업'과 '구 문화예술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이 선정되어 조금씩 불씨를 이어가고 있고, 월명동과 흥남동의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향후 사업에 대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빛나는 시민의식으로 군산의 봄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

항일의 혼이 살아 있는 '붉은 노을 구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군산시 '구암동' 등 전국 도시 22개소를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구암동 지역이 우리나라 최초 선교지인 동시에 한강 이남 지역의 최초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으로 역사·문화적 의미가 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지인 구암동 362-1번지 일원은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노후주택 비율이 높으며 도시가스, 하수도 보급률이 0%로 생활·위생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속적인 주민회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요청한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무엇보다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박남용 추진위원장은 "구암동은 항일의 혼이 살아 있는 장소"라며 "붉은 노을도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암동의 가치를 주민들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군산시는 앞으로 사업비 교부 및 추경 예산 반영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생 알림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도시재생사업 홍보,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현장 업무를 담당합니다.

위치



활용

센터 2층 로비에 도시재생사업 안내 및 홍보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주민공모사업

군산시는 홈페이지(gunsan.go.kr)를 통해 3.2(월)~3.20(금)까지 <2020년 소규모도시재생(월명동/흥남동) 주민공모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를 했다. 지역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적극적인 도시재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공모사업은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민공모사업
참여 절차

0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상담

02 사업계획서 작성

03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온라인)

04 위원회 심사

05 선정 시 국고보조금통장 개설 및 협약체결

06 보조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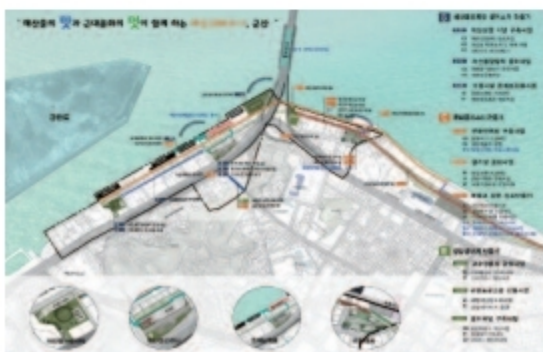
07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추진

08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

2020년 해신동 ·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박차 가한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해신동과 소룡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20년부터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

‘해산물의 맛과 근대문화의 멋이 함께 하는 해신(海神)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해산물 융복합클러스터 · 문화 클러스터 만들기,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만들기, 자립적 성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1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75억원, 부처연계 455억원, 자체사업 30억원, 민간투자 3억원, 기금 15억원 등 총사업비 753억원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며 현재 수산물센터 이전사업과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수산물 시장이 밀집되어있는 해신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룡동 도시재생뉴딜

‘용비하는 생명의 삶터 소룡(小龍),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소통으로 도약하는 소룡마을’이라는 비전과 목표로 순환형 임대주택 및 LH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부족한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주민조직 육성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마중물 사업비 142억원,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145억원, LH 공공용 토지 비축사업 6억원, 지자체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원 등 총사업비 318억원 규모로 2023년까지 추진한다.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중앙동 주민공모사업 ‘짜보선창 온정마차’

짜보선창 온정마차가 주민들이 손수 만든 쿠키와 쌍화차를 싣고 이웃의 문을 두드렸다. 직접 써 내려간 손편지를 담아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도시재생도 이야기하는 계기를 마련한 온정마차는 중앙동 일대 도시재생뉴딜 주민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신청한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으로 익힌 쿠키 제조기술로 주민들이 만들어낸 ‘할매쿠키’는 판매를 해도 손색없는 완성도로 프리마켓에 참여해 완판을 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쿠키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직접 제작한 온정마차를 통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업완료를 향해 순항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주춤

산북동 장전 · 해이 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2017년 선정되어 2018년부터 사업 시행 중인 산북동 장전해이 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업 완료를 향해 순항 중이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마을쉼터, 생활안전 CCTV 및 가로등 설치사업이 완료됐고, 집수리, 커뮤니티센터 구축 등의 시설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추진이 멈춘 상황이다. 장전 · 해이 마을 주민들에게 꼭 맞는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주민 스스로 잘 조성된 정주여건을 유지 · 발전시켜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원광장은 주민들의 앞마당!

매년 꽃심기 실천하는 주민 “이유 있다”

홍남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원들이 미원광장에 110개의 튤립구근을 심으며 봄을 부르고 있다. 2019년 봄에도 주민공동체가 나서서 꽃씨를 뿌려 코스모스 등이 나무 주변에 예쁘게 피었는데 이와 더불어 올해는 튤립구근을 식재해 늦어도 5월에는 튤립을 볼 수 있겠다.

주민들이 매해 자발적으로 꽃을 심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박춘남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원광장 일대에는 쪽방촌이 있고 폐가가 많으며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주민들의 앞마당 같은 광장이 쾌적하면 좋겠는데 멀리서도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배설시키는 장소가 되었다”고 말하는 박춘남 회장은 꽃을 심는 이유에 대해 “마을이 환해지고, 애완견 배설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린내 등으로 고통스럽다”며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해가는 개념 있는 견주들도 있지만 소변의 경우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코로나19로 우울해 있는 시민들이 튤립의 개화를 보며 위로받기를 바라고,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봄을 접은 미술작가들, 중앙동을 시민과 함께 보기로 하다

중앙동 영상기록과 전시, 코로나19로 시민참여 잠정 연기

이너프 스튜디오(대표 장한성)는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지역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돼 중앙동의 영상기록과 전시 그리고 도시재생 리파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동의 특색있는 맛집 소개와 주방장들의 인터뷰, 청년미술가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홍보한다.

장한성 대표는 "재생을 미적 관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고민했고, 나무로 형상화하는 설치미술을 중앙동 주민과 함께 했다"며 "중앙동의 영상 기록을 시민과 함께 보고 공감하는 어울림의 장소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한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근대역사박물관이 휴관 상태여서 개관하는 날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잠정 연기상태라고 한다. 3.3.~5.6까지 근대역사박물관 시민갤러리에 작품이 설치된다.



주민이 한다

군산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

오시요 공동체가 말한다



글_ 오시요 공동체 대표 김용민 사진_ 포토그래퍼 정연주



공용주차장에 대한 고민

고민. 공용주차장 진입시 좌회전 표시 설치가 없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민. 에넥스,교보생명,삼성생명 직원분들께서 공용주차장에 오전 8시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주차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어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사용을 못하고 불법주차를 하거나 불편함 때문에 오시요거리에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의 일부 차량만 장기 주차하는 현실을 시스템으로 해결해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이 될 수 없을까요?



화재 발생 여건에 대한 걱정

걱정. 오래된 전기선 통신선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군산초등학교 활용 계획에 대한 제안

제안. 구. 군산초등학교가 교육박물관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하던데, 교육박물관 용도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앙로 오시요 공동체는 한마음으로 지역 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활동해나갑니다.

군산 궤보선창 아카이브 제안

47년의 역사, 궤보선창 신진조선소 활용 선박박물관 건립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문병일 팀장

군산시 중앙동 일원(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금암동 옛 수협 창고 명칭 선정을 지난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군산 궤보스토리 1899'로 선정하였다. 군산개항의 해인 1899년부터 이곳 궤보선창의 이야기를 담고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궤보선창 유래는 Y자로 살짝 꺾진 강안에 석축을 쌓아 조성한 포구가 궤보(언청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로 궤보선창이라고 불렸으며 조선시대에는 축성포구로 일제 강점기에는 동부어판장으로 불렸다. 현재 복개 공사로 궤보처럼 움푹 파여 있는 선창을 볼 수 없고 포구 및 어판장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한 지 오래다.

궤보선창의 옛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나 47년



넘게 궤보선창을 지키고 있는 터주대감 신진조선소가 자리하고 있다. 1974년 창업하여 이곳에서 25년 전까지 목선을 제작하였으며 현재는 강선과 FRP를 활용한 배를 건조 및 수리하고 있다. 현재 2대 사장님은 35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궤보선창의 회로에락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신진조선소는 군산의 조선산업과 궤보선창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다.

현재 군산에 목선제작이 가능한 목수들이 2~3명 정도 있어 일자리 창출과 문화유산을 되살려 25년 전 옛 조선소를 복원하고 잊혀져가는 목선 제작 시연 및 체험을 통해 군산의 조선산업의 역사를 재현하여 역사와 관광을 접목한 특화거리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

군산의 역사박물관으로 시작하여 해양테마공원을 거쳐 궤보선창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신진조선소를 활용한 선박박물관을 제안해 본다.



선도지역 코로나19 대응 재차 안전 철저

3.9(월) 주민협의체와 군산시 합동 소독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협의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바라며 선도지역 소독을 주도하고 나섰다. 이에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군산시와 지역의원들이 함께 해 훈훈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다.

소독에 참여한 한 주민은 "복직대는 사람이 그림자. 상점들은 손님들이 하루빨리 다시 찾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장님이 직접 소독통을 들고 구석구석 소독을 해주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직접 소독하는 일쯤 아무것도 아니다."



며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는 데에는 군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고통스럽지만 조금 더 힘을 내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군산 도시재생 소식



2020. 2. 19

군산공예협동조합과의
'공감'



2020. 2. 27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인남 팀장 강연



2020. 2. 27

도시재생사업 논의
오시요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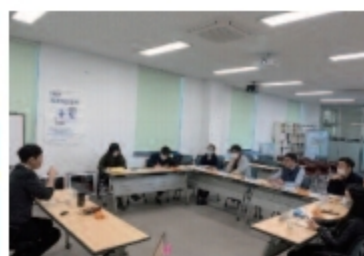
2020. 2. 28

중앙동 신영시장상인회공동체
정기회의



2020. 2. 29

홍남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정기회의



2020. 3. 2

지역관리회사 (주)지방과의
'공감'



2020. 3. 4

'손편지축제' 준비
우체통거리 주민회의



2020. 3. 6

지속가능한 서도지역 도시재생 논의
월명동 주민협의체 회정단&센터



2020. 3. 9

코로나10 대응 선도지역 소독
월명동 주민협의체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체결



지난 1월 21일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류욱 이사장과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송석기 센터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1월 21일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양기관)는 군산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할 자조조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기관의 업무협약이 많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산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

소식지에 사용하는 캐릭터, 센터·주민협의체 로고는 이상훈 작가의 작품으로 2016년부터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 홍보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회 군산도시재생축제 2020. 3. 7 (토) 10:00 - 19:00 / 19:00 - 19:00 토요장터 11:00 - 19:00

우체통거리 2020, 제 3회 손편지 쓰기 대회

주최 : (주)국립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시민·기업의 연합체
개최 : 2020. 3. 7 (토) 10:00 - 19:00
참여대상 : 군산시민
작품종류 : 손편지 1매 (국립은행, 단, 손글씨로)
※ 작품 : 국립은행, 단, 이문, 김태현
※ 입상작 : 이문, 김태현

시상 : 수상자에게 각 장군과 사관의 무도제적, 모든 참가자에게는 제3회 군산도시재생축제 프로그램 무도제적은 1매 지급.

구분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장군

제3회 군산도시재생축제 기간 3월 7일 토요일, 개회식
시상장 : 군산우체통거리

발표 : 2020. 4월, 4월말
제3회 군산도시재생축제 당일 10:00 - 19:00
주최 : 군산우체통거리, 군산우체통거리, 군산우체통거리
주최 : 군산우체통거리, 군산우체통거리, 군산우체통거리
주최 : 군산우체통거리, 군산우체통거리, 군산우체통거리

* 상기 손편지축제 일정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장미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장미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 도시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이해하고, 풀이하는 도시재생대학
관련학과 재학생은 4월 1일부터 두 개 학기로 운영되는 도시재생대학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장미동 주민 및 군산지역 20명 내외
모집기간 : 2020. 3. 16 - 3. 19 (토, 일)
신청방법 :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접수 (군산시 우정7길 12, 2층)
• 장미동, 월명동, 삼정동, 홍남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두 학원 중 택일도 가능

강의내용 : 1. 신청서 2. 개인정보공개서 (교육일정 안내 등 포함)
강의일정 : 2020. 3. 16 - 4. 7 (매주 월, 목 20시 - 21시)
강의장소 :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 세미나실 또는 장미동주민센터 152

강의일정	강의시간	강의내용
3. 16 (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도시재생의 필요성
3. 17 (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18 (수)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19 (목)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20 (금)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21 (토)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22 (일)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23 (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24 (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25 (수)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26 (목)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27 (금)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28 (토)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29 (일)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30 (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3. 31 (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1 (수)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2 (목)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3 (금)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4 (토)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5 (일)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6 (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7 (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장미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장미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 도시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이해하고, 풀이하는 도시재생대학
관련학과 재학생은 4월 1일부터 두 개 학기로 운영되는 도시재생대학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장미동 주민 및 군산지역 20명 내외
모집기간 : 2020. 3. 16 - 3. 19 (토, 일)
신청방법 :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접수 (군산시 우정7길 12, 2층)
• 장미동, 월명동, 삼정동, 홍남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두 학원 중 택일도 가능

강의내용 : 1. 신청서 2. 개인정보공개서 (교육일정 안내 등 포함)
강의일정 : 2020. 4. 20 - 5. 19 (매주 월, 목 20시 - 21시)
강의장소 :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 세미나실 또는 장미동주민센터 152

강의일정	강의시간	강의내용
4. 20 (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도시재생의 필요성
4. 21 (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22 (수)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23 (목)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24 (금)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25 (토)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26 (일)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27 (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28 (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29 (수)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30 (목)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4. 31 (금)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 (토)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2 (일)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3 (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4 (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5 (수)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6 (목)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7 (금)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8 (토)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9 (일)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0 (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1 (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2 (수)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3 (목)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4 (금)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5 (토)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6 (일)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7 (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8 (화)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5. 19 (수)	20:00 - 21:00 (90분)	도시재생의 필요성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가요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2018.10.01. 조례 제1552호 제정
2019.11.15. 조례 제1690호 일부개정

제1차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문화·환경·교육·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은 재생이 4월호에 계속